

이원재 제1차관,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현장 방문

- 하계 집중호우 전 침수방지시설 등 입주민 안전시설 보강 최우선 강조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사장과 5월 31일(수) 오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오늘 방문한 세대는 반지하 3세대가 포함된 3층 주택으로 총 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,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시설(차수판), 방범용 창호, 침수경보장치, 배수펌프, 세대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.
- 현재 LH는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세대 전체 세대(4.4천호)를 대상으로 차수판,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, 연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- 이원재 1차관은 “올해에도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, 현재 입주자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세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을 최우선에 둘 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우선적으로, 입주자가 머물고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세대 3.3천호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”할 것을 LH에 당부하였다.

2023. 5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